

전문요원제도와 기록관리교육의 질적 제고

김익한*

엘리트 모델의 '虛'와 '實'

잘 배워 기록물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가?

양성과정 질적 제고의 방향

엘리트 모델의 '虛'와 '實'

우리의 기록관리체제는 엘리트 모델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과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국민 일반은 물론 마스크까지도 정부기록보존소라는 공공기관의 멀쩡한 명칭을 “정보기록관리소”, “정부문서보관소”라고 오보하는 ‘무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일리 있는 대목이다. 기록관리체계를 주도한 것은 정부기록보존소와 동소에서 입안·시행한 기록관리법임에 틀림없다. 법의 입안과정은 기록관리 선진국의 예를 검토하여 ‘후발성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챙긴 대표적 사례로 들만하다. 레코드스케줄 제도나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물의 서지적 정보관리체제를 도입한 것 등은 가히 선진수준을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역사과정을 거쳐 지역의 필요에 의해 기록관리기관이

*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에 의해 일괄해서 자료관을 포함하는 기관의 설립이 강제된 것도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기록관리체제의 새로운 구축이 엘리트 모델에 해당한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측면이 단지 엘리트 모델이라는 이유로 폄하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대목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특히 구조조정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분위기 아래서 인력과 시설이 요구되는 기록물관리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트 모델에 의한 일의 추진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록물관리법 체제의 실현이 반대적 정서를 갖는 사람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기록물관리법이 기존의 이른바 공문서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근본에서 뜯어고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존의 공문서 관리담당자들이나 이에 익숙한 일반 공무원들의 반발을 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 공문서관리 관행의 문제의 핵심은 담당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있다. 다행이 이러한 면을 잘 이해하고 기존 공문서관리담당자들 가운데 기록물관리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문제가 근본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고 기록물관리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엘리트 모델에 의한 일의 추진이 의미 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그러나 엘리트 모델에 연유하는 '虛'의 측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불가피하게 준비가 덜되었던 부분들이 서서히 표출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 그 자체의 한계가 그 하나인데, 예컨대 記述시스템이 국제 표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 구축한 기록물 기술목록을 상당부분 개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전자정부의 구현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전자기록물 관리 및 유통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법 시행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적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격상함으로써 법 시행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과 시행이 겨우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나 자료관의 설립을 위한 재원의 마련 역시 이뤄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기관 설립이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커다란 ‘虛’는 전문가 양성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국민일반, 각 지역, 각 영역에서 기록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 과학적 방법론이 연구되고 또한 전문연구자들이 생기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과정이 설계·시행되는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이 계기가 되어 현실적 필요가 발생하면서 교육과정이 급하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전문연구자 역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교육과정을 개설하려 노력하였던 것은 역설적으로 엘리트 모델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식의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기록관리 개혁에 동참할 다수의 새 주체를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해 가는 것이야말로 엘리트 모델의 ‘虛’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발전의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교재도 없고 전문교육자도 없으며 교실조차 없어서는 엘리트 모델로 시작한 기록관리의 새 문화가 그저 몇몇 사람의 악전고투로 끝나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먼저 교실을 만들었을 것이다. 교실을 만들어 학생이 채워지면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교육자도 하나 둘 더 생길 것이라는 ‘낙관

론'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낙관론'이 현실론으로 발전하는 길은 오직 하나 노력뿐이다. 지금의 '虛'한 교육과정 속에는 이를 '實'로 만들어 엘리트 모델을 극복해 가려는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虛'의 존재를 이유로 엘리트 모델이 근원에서부터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엘리트 모델의 비민주성을 강조하여 기록물관리체제의 구축 그 자체를 부정하는, 혹은 단순한 시기상조론을 구사하는 것이야말로 역으로 비현실적 비판논리에 불과하다. '虛'와 '實'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實'이 끌고 '虛'가 이를 쫓아가는 형국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리트 모델조차도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모두의 절절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교육의 현실을 원론만을 가지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현재의 교육을 완성태인 것처럼 강변하는 것은 더욱더 옳지 않다. 현재를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발전시켜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함으로써 제대로 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잘 배워 기록물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미 10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재학중인 대학원생만 줄잡아 200명을 웃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모델의 '虛'를 근거로 "석사 받는다고 전문가인가?"라는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극소수의 비판적 관점이겠지만 이러한 愚問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잘 배워 기록물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편가르기의 소재로 삼지 말고 진지하게 답하는 해보는 것이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虛’한 현실을 ‘實’의 미래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잘 배우고 있는지는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상적 교과과정의 존재여부와 학문적 문제해결의 능력 배양 여부를 통해 확인된다. 각 대학의 교과과정을 전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로 하고,¹⁾ 여기서는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그간의 과정과 필자가 속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의 현실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한다.

엘리트 모델의 ‘虛’한 측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성의 이익’은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역시 톡톡히 보았다. 이미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한복희, 김상호의 전문교육의 방향에 대한 초기 문제제기가 있었다.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문헌정보학의 한 분과학문의 차원에서 보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T. C. Bearman, Luciana Duranti 등의 논지를 엿볼 수 있었고 American Archivists에 실린 주요 논문들이 인용되었으며 SAA의 Guidelines가 언급되었다.²⁾ 1998년 11월에는 교육과정 개설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상민의 상세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1994년판 SAA Guidelines가 상세하게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일본의 양성과정에 대한 소개 및 자격증제도에 대한 언급까지 이뤄졌다.³⁾ 1999년에는 김기석과 김태수에 의해 각각 개설교과과정에

-
- 1) 윤송원, 「기록관리사(Archivist) 양성을 위한 교육과 교과과정 연구」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최정태, 「『기록관리학』, 그 교육의 방향 - 신설 9개 대학원 교과과정을 보면서 -」, 『기록학연구』 2, 2000, 참조.
 - 2) 한복희, 「기록보존학 연구의 발전방향」, 『기록보존』 7, 1994; 김상호, 〈한국 기록보존사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28, 1998, 참조. 한복희의 연구는 주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다뤘지만, 양성과정 전반의 방향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언급이 많다.
 - 3)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훈련제도」, 『기록보존』 11, 1998, 참조.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었다.⁴⁾ 2000년 이후에도 이승휘, 김영애, 김용원에 의해 각각 중국, 독일, 일본의 양성과정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있었으며,⁵⁾ 최정태·윤송원은 현행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차원으로까지 논의의 수준을 높였다.⁶⁾ 물론 이들 연구는 기록학의 정체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 및 기록관리 전문가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서로 대립하기조차 한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의 단계에서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선진 외국의 교육과정이 충분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소개가 ‘후발성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매개가 되어 실제 대학원 교과과정의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와 교과과정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후발성의 이익’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개설 최초연도인 2000년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었다.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학연습/ 한국기록사료연구/ 한국기록관리제도사/

-
- 4) 김기석, 「기록과학과 기록관리 전문가」, 『국가기록보존관리 - 현실과 미래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창립심포지엄 자료집), 1999; 김태수, 「기록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한국기록보존협회 1999년 세미나 자료집), 1999. 참조. 교과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이외에 김기석의 논문은 한국적 교육의 특성에 대한 강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김태수의 논문은 Guideline 외에 미국 등의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과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발전을 이뤘다.
 - 5) 이승휘, 「중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 중국인민대학 당안학원을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창간호, 2000; 김영애, 「독일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 마부르크 기록학교(Marburg Archivschule)를 중심으로 -」, 『기록학연구』2, 2000; 김용원,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 駿河台(스루가다이)大學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1-1, 2001, 참조.
 - 6) 최정태·윤송원,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1-1, 2001, 참조.

세계의 기록관리제도/ 기록과학의 제문제

기록 평가선별론/ 기록의 정리와 분류/ 기록정보서비스론/ 보존과학연구/ 기업·단체·대학기록관리론/ 구술사방법론/ 전자·시청각기록관리론/ 기록관리실습/ 인턴십

한국현대행정조직연구/ 기록관리관련법연구/ 한국근현대법제사연구, 서지학/ 지방지·기업사편찬방법론⁷⁾

이 편성 내용을 보면 SAA의 1994년판 Guidelines 및 미국 대학들의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⁸⁾. 오히려 과목 수의 측면에서는 미국 대학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데 이는 단위 학점을 2학점으로 조정하여 좀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결과일 것이다. 물론 비교적 초기부터 안정된 교과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수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교과제도에 비해 강의내용이 아직 완결적으로 채워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후발성의 이익’을 톡톡히 본 흔적은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다.

동대학원은 2년간의 교과과정 운영의 결과를 분석하고 2002년도에 부분적인 개편을 피하였다. 개편의 내용은 한국근현대법제사연구와 지방지·기업사편찬방법론, 서지학 과정을 폐지하여 보완지식에 해당하는 영역을 축소하고 기록관경영론을 보완신설하며, 기록의 정리와 분류를 분류기술방법론연구로, 구술사방법론을 구술기록관리연구로, 전자·시청각기록관리론을 기록미디어관리론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IT관련 과정 및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과정들을 보완하는 것이

7)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과과정운영 계획(2000)> (내부 문서), 1999, 참조.

8) 1994년판 Guidelines에 대해서는 앞의 이상민, 「기록관리학과 아키비스트 교육 훈련제도」, 『기록보존』 11을 참조하라.

Guidelines 그 자체는 <http://www.archivists.org/prof-education> 참조.

었다. IT관련 과정으로는 인터넷 OA의 기초/ 정보관리와 DB/ 통계와 컴퓨터(SPSS)의 3과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전자적 기록관리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록관리연구방법론/ 기록학논선평론/ 기록사료특강의 3과목이 신설되었다.⁹⁾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는 1994년판 SAA Guidelines의 지향을 유지하면서 보완지식영역을 축소하는 대신 IT영역을 강화시키고 석사과정생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능력이 타학문분야에 비해 기록관리전문가 양성과정에서 더욱 필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응용학문 일반이 그렇듯이 교육의 최종적인 지향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을 해두지 않을 수 없다. 테리 쿡(Terry Cook)이 “‘실용적’의 반대가 ‘이론적’이 아니라 ‘비실용적’임을 기록관리 전문가는 잘 새겨야 한다”¹⁰⁾고 한 이야기는 의미 있는 함축을 담고 있다. 교과과정이 충분히 이론적인 것은 실용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오히려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단지 교과와 내용이 실용적 적용이 가능한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현재의 교육의 문제점은 수업 내용의 측면에서 아직 실용의 수준에 충분히 달해있지 못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데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충분한 이론적 지식의 학습에 의해 문제해결능력이 모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원리론적 접근이고 이러한 원리가 현장의 다양성에 곧바로 대

9)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교과과정개편 계획(2002)> (내부 문서), 2001, 참조.

10) Yake, Elizabeth, “Introduction : Graduate Level Archival Education Comes of Age”, *American Archivist*, 63-2, 2000, p.223.

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론들을 실용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원리론적 접근을 구체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대학원생들 스스로의 연구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활동할 대학원생들은 과정을 통해 학습한 원리론적 접근을 토대로 하여 교회 기록관리에 유용한,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에 유용한, 사진기록관리에 유용한, 혹은 해당기관에 속한 기록물의 특성을 살린 기술요령 마련에 유용한 지식 등등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연구, 조사, 현장실습 등을 복합하여 스스로 특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이 기록관리학연습, 기록학의 제문제의 2과목에 지나지 않았던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위한 과목에 더하여 기록관리연구방법론, 기록학 논선평강, 기록사료특강을 신설하여 총 5개과목으로 확대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개편교과과정이 시행된지 근 1년이 되어 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이제 대학원생들은 해외의 대표적인 전문잡지에 수록된 주요 논문들, 케이스스터디들을 필요에 맞추어 찾아 읽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한 창조적 적용의 훈련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국내에 변변한 외국 전문잡지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던 초기단계에 비한다면, *American Archivist*, *Archivaria*,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Janus*, 기타 기본적인 전문 단행본 정도는 쉽게 찾아 이용할 줄 아는 현 단계는 초기에 비하면 커다란 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교과편성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록학 전문지식과 관련된 교과과정 :

기록관리학개론/ 기록관리학연습 / 한국기록관리제도사 / 세계의 기록관리제도 / 기록학의 제문제/ 기록학논선통감/ 기록사료특강

기록관리업무지식과 관련된 교과과정 :

기록평가선별론/ 분류기술방법론연구/ 구술기록관리연구/ 기록미디어관리론/ 기록관리실습/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관리답사

맥락지식과 관련된 교과과정 :

기록관리관련법연구/ 컴퓨터와 인터넷 기초/ 정보관리와 DB/ 컴퓨터와 통계 / 정보관리시스템 요구분석과 설계/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와 네트워크

다학문지식과 관련된 교과과정 :

연구방법론 I/ 연구방법론 II/ 보존과학연구/ 한국현대행정조직연구/ 기록관 경영론

교과과정이 안착되어가면서 대학원생들의 문제해결 능력도 점차로 향상되어 갔다. 논문자격시험은 현 단계에서의 대학원생들의 능력을 짐작하게 해 주는 재료의 하나이다.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논문자격시험은 기록관리 제도와 관련법령, 기록관리방법론1, 기록관리방법론2의 3과목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최근의 것인 2002년도 후기 시험문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제도와 관련법령>

1. Record Center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미국식 기록관리체제와 유럽식 기록관리체제를 대별하여 설명하라.
2. 프랑스 대혁명 이후 기록관리의 제도 및 관리방식 상의 변화에 대해 논하라.
3.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기본목록 및 세부목록의 구성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라.
4. 대통령 임기 종료시의 대통령 기록물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5. 다음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라.

- (1) 지정기록물 (2) 기록물배부대장 (3) 제3자의 의견청취

<기록관리방법론1>

1. 어느 아카이브즈에서 기록화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의 방법론을 고려하여 Manuscript의 수집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 이를 수행해야 하는가.
2. Frank Boles가 제시한 평가모듈 및 구성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3. 거시평가론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라.
4. 평가를 위한 표본추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라.
5. 다음의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1) deaccessioning (2) outreach program (3) leads file

<기록관리방법론2>

1. MARC AMC Record와 MARC Record의 특성상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2. 호주 CRS(The Commonwealth Record Series)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 분류의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3. 개인기록물(personal paper), 일정 조직이 생산한 수집기록물(organization manuscript), 일정 조직이 생산한 기관기록물(institutional archives)의 정리 방식 상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라.
4. ISAD(G)의 26개 기술요소를 나열하라.
5. 다음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라.
(1) management record group (2) diplomatics (3) APPM 11)

2001년 후기 시험의 경우도 대체로 비슷한 수준과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때는 8명이 응시하여 전체적으로 70%의 합격률을 보였다. (과목별 합격 하한점 70점) 또한 2002년 전기 시험의 경우는 2001

11)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2/2 기록관리학과 종합시험문제> (내부문서), 2002.

년 후기 일부과목 불합격자 3명과 새로운 5명의 응시자가 시험을 보았는데 이 역시 전체적으로 60%정도의 합격률을 보였다.¹²⁾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정은 석사학위논문이다. 기록관리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일단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첫 석사학위논문이 나와야할 2002년 7월에 결국 단 한명의 석사학위자도 배출하지 못하였고 2003년 2월에 겨우 3명을 배출하였다. 물론 주임교수의 무능이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대학원생의 문제해결능력을 석사논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체계적인 교육, 석사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그 동안 닦은 문제해결능력을 집약시키는 과정, 석사논문 심사를 통한 여과장치 등은 전문가 양성제도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본다면 엘리트 모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의 전문가 양성과정은 “석사 받는다고 전문가인가?”라는 愚問을 받을 만큼 ‘虛’하지는 않다고 잠정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나 대학원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함양의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최소 요건은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虛’한 현실을 ‘實’로 만들어 엘리트 모델을 극복해 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작으나마 하나씩 성과를 이뤄가고 있다.

양성과정 질적 제고의 방향

그렇다고 전문요원제도의 현실화에 짝할 만큼 전문가 양성교육이

12) 명지대학교 기록과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종합시험 응시자 통계(2002/1)> (내부문서), 2002, 참조.

잘 이뤄지고 있는가하면 물론 그렇지 못하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기록학만 담당하는 별도의 전임교원을 임용하지 않은 채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역사과나 문헌정보학과, 행정학과 소속 교수들이 1인 2역, 3역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교과과정과 그것을 집행하는 교수자와, 적절한 시설, 그리고 진지한 학생이 모두 존재할 때 비로소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의 교육이 완성태라 강변할 수 없는 이상, 양성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탐구와 현실화가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기록학 대학원과정 guidelines(2002 Guidelines for a Graduate Program in Archival Studies)는 질적 제고의 방향성을 생각하는 데에 귀중한 시사를 준다.¹³⁾ 2002년판 guidelines는, 이상민의 상세 소개 이후 대학원 교과과정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1994년판 guidelines를 개정하여 만든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94년판 guidelines는 교과 영역을 기록학 지식(archival knowledge), 맥락 지식(contextual knowledge), 보완지식(complementary knowledge)으로 크게 3분하고 있는데 반해 2002년판 guidelines는 기록학 지식과 맥락지식을 하나로 묶어 기록학 母型지식(core archival knowledge)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보완지식은 다학문지식(interdisciplinary knowledge)으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리고 기록학 모형지식은 다시 업무지식(knowledge of archival function), 전문지식(knowledge of the profession), 맥락지식(contextual knowledge)로 구분하고 있다.¹⁴⁾ 여기에서 기록학 모형지식과 다학문지

13) http://www.archivists.org/prof-education/ed_guidelines.asp.

14) 2002년판 guidelines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식을 대비해서 구분한 것의 의미는 이전에 비해 기록학을 정체성이 강한 독립학문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록학 그 자체가 다학문적 성격을 띠어도 불구하고 굳이 기록학 모형지식이라는 용어를 한편에서는 사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학문 분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에 한하여 다학문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곧 기록학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1994년판 guidelines

기록학 지식
→
맥락지식
보완지식 →

2002년판 guidelines

업무지식 ㄱ
전문지식 ㄷ 기록학 모형지식
맥락지식 ㄴ
————— 다학문지식

기록학 정체성의 확대발전을 의미하는 이러한 경향은 양성과정의 질적 제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즉 교과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학 모형지식에 해당하는 영역은 보다 기록학 답게, 다학문지식에 해당하는 영역은 보다 해당 학문답게 교수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의 분류와 기술을 교수하면서 문헌정보학적 분류·기술론을 가르쳐서는 안되고, 기록평가선별론을 교수하면서 역사사료론을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기록학의 정체성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교과과정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기록학적 내용으로 교수하고, 관련 학문으로부터 배워와야 할 부분은 관련 학문의 내용 그 자체를 집약적으로 교수하여 대학원생 스스로가 그 방법론을 기록관리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사실 전자의 측면은 아직 전문교수자가 많지 않은 우리 상태에서

쉽지는 않은 과제이지만, 근래에 들어 현장경험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이론적 탐구를 어느 정도 달성해낸 교수자, 혹은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 기록학 이론의 정수에 접근하고 있는 교수자들의 수가 늘고 있어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2002년 1, 2학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11명의 교수자 중 전자에 속하는 교수자가 4명, 후자에 속하는 교수자가 3명, 타 학문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교수자가 4명이었다.¹⁵⁾ 아직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기록학 전문교수자로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7명이 된다는 것은 초기 단계에 비한다면 커다란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연구능력이 그대로 교수 능력이 될 수 없는 이상, 요는 실러버스의 공개, 집담회 등을 통해 최선의 실러버스를 작성하도록 하는 공동의 노력 등일 것이다. 이것이 발전하면 미국처럼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다 상세한 대학원 교육 guidelines가 만들어 질지도 모른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당면의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다학문영역에 속하는 교과과정들에 대해서는 교육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2002년판 guidelines를 보면 보존기술학, 연구디자인과 실행, 역사 및 역사학적 방법론, 경영론, 조직론 등이 다학문지식의 범주에서 교육되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되어있다.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다학문지식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록학적으로 응용한 교과목들이 교수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기록학적 교육을 강화시키기

15) 현장경험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이론적 탐구를 어느 정도 달성해낸 교수자, 혹은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 기록학 이론의 정수에 접근하고 있는 교수자에 대한 엄밀한 규정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 다만 교수자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에 대해 언급하기 위한 근거 정도의 차원에서 간단하게나마 기준을 설정하였다. 전자는 기록관리관련기관 경력 2년 이상에 전문 논문 1편 이상 발표자, 후자는 공동연구프로젝트 및 전문 논문 3편 이상 발표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위해 취한 전략방향이었으나, 2002년판 guidelines의 방향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본대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에서는 연구디자인과 실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관리연구방법론을, 경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관경영론을, 조직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현대행정조직연구를 개설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학원생들의 수학능력, 응용력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대목이기는 하지만, 역시 연구방법론은 사회과학 일반의 연구방법론의 핵심을, 조직론과 경영론은 행정학과 경영학에서 다루는 조직론, 경영론의 핵심 내용을 교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전략적 전환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잘 알려진 바대로 전자기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과정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1996년도 스톡홀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마가렛 헤드스트롬의 논고만 보더라도 전자기록의 관리자(electronic recordkeepers)로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지향점은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¹⁶⁾ 아직 선진 외국에서조차 완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론적 혼란의 문제, 학문 이론적 발전에 초점을 두려는 경향과 현장 적용에 초점을 두려는 경향과의 해결되지 않은 대결점의 문제 등등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IT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전자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학 모형지식의 교과내용을 전반적 개편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앞서 소개한대로 명지대학교의 교과과정에서 IT관련 개설과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름대로 새로운 교육의 경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 것은 확인되지만 이 역시 아직 미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전자기록관리에 적용 가능한

16) Margaret Hedstrom, "Cohesion and Chaos : The State of Archival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The Concept of Records*, Swedish National Archives, Stockholm, 1998, 참조.

형태로 기록학 모형지식의 교과내용을 전반적 개편하는 일은 더욱
쉽지 않다고 본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
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단
계를 볼 때 지금이 첫 단추를 꿰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시기일 것
이다.

명지대학교의 경우는 2003년부터 기록과학대학원에 포괄되어있던
문화재, 박물관 관련 학과를 문화예술대학원으로 옮기고 새로이 전자
정부학과, 기록관리학과, 여가정보학과, 스포츠기록분석학과의 4과 체
제로 운영할 계획이 2002년 4월 확정된 바 있다.¹⁷⁾ IT를 기반으로 하
는 정보관리 중심의 대학원으로 체제를 개편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IT관련 과목의 집중 개설 등의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동 대학원은 발전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과 편제의 개편뿐
만 아니라 이미 개설된 인터넷 OA의 기초/ 정보관리와 DB/ 컴퓨터와
통계에 더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응용프로그램(VB, Web)/ 정보
시스템 분석 및 설계의 3과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이 가운데 4과목을
졸업이수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자기록관리에 적
용 가능한 형태로 기록학 모형지식의 교과내용을 전반적 개편하는 일
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이러한 과제를 여러 대학
이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1999년 개최된 SAA의 피츠버그 미팅(1999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nual meeting in Pittsburgh)에서도 우리는 질적 제고의 방향
과 관련된 몇 가지 단초를 발견하게 된다. 이 미팅의 주제는 "Research
In and Research About Graduate Level Archival Education"이었는데, 피츠버
그 대학의 리처드 콕스(Richard J. Cox), 미시간 대학의 엘리자벳 야켈

17)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3년 기록과학대학원 발전방안> (내부문서),
2002, 참조.

(Elizabeth Yakel), UBC의 루치아나 듀란티(Luciana Duranti), 호주 모나시 대학의 수 맥케미쉬(Sue McKernish)와 같은 영미 교육계의 중심인물들이 대거 발표에 나섰다.¹⁸⁾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루치아나 듀란티의 박사과정에 대한 숙고¹⁹⁾과 수 맥케미쉬의 협동적 연구개발의 강조²⁰⁾이다. 듀란티는 SAA의 guidelines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박사과정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리의 실정에서 본다면 분명 박사과정의 신설과 교육내용의 준비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아 앞에서도 말한 엘리트 모델의 극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기록학 영역의 전반적인 연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 당면과제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맥케미쉬의 협동적 연구개발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양성과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레코드키퍼시스템을 근거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대학원이 교실을 넘어 공동연구실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과정일 수 있다는 시사이다. 현장의 실무자들, 컨설턴트, 기록관리시스템개발자, 교수와 대학원생이 어우러져 산관학협동으로 진행되는 공동연구야말로 대학원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극대화하는 첩경일 것이다. 대학원생들은 이를 통해 교수받은 내용을 종합화

18) 이 미팅의 발표논문과 토론 정리는 *American Archivists* 63-2, 2000에 특집호의 형태로 실려있다. 미팅 주요 참여자는 테리 쿡(Terry Cook), 프레드릭 밀러(Fredric M. Miller)와 같은 대표적 아키비스트 이론가, 피츠버그 대학의 리차드 콕스(Richard J. Cox), UBC의 루치아나 듀란티(Luciana Duranti)와 테리 이스트우드(Terry Eastwood), UCLA의 앤 길리랜드스웻랜드(Anne Gilliland-Swetland), 미시간 대학의 엘리자벳 야켈(Elizabeth Yakel)와 데이빗 월레스(David A. Wallace), 그리고 호주 모나시 대학의 수 맥케미쉬(Sue McKernish) 등이었다.

19) Luciana Duranti,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Graduate Archival Education: A Sneak Preview of Future Directions", *American Archivist* 63-2, 참조.

20) Sue McKernish, "Collaborative Research Models: A Review of Australian Initiatives", *American Archivist* 63-2, 참조.

하고 응용화하며 현실에 적용하는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등의 실무기관에 의한 교육의 견인 역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맥케미쉬의 제언을 현실화할 때 가장 적절한 모델은 기록물관리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동연구의 개발, 관련기관에서의 펀딩, 대학과 기록관리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의 진행일 것이다. 물론 기업, 단체 등의 위탁에 의한 것일 경우에도 공동연구의 진행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대학이 공동연구의 장소 및 시설 등을 제공하여 대학원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 연구를 결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기록연구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무기관에 의한 교육의 견인은 그 외에도 여러 차원에서 고안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학원의 실습교육을 위탁받아 이들을 실습시킴으로써 아직 공공기관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 물론 정부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등만 하더라도 기능에 비해 인력규모가 적어 적절히 실습교육을 운영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작부터 완벽할 수 없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현실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실습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생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더 없이 커다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팀티칭 방식에 의한 교육 교환의 구상 역시 필요하다. 대학원 교육에 기록관리기관 실무자들이 팀티칭의 방식등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대학 교원들이 기록관리기관 실무교육에 교차 참가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요원제도의 현실화는 단지 제도 성립의 일방적 과정이어서는

안된다. 제도 현실화의 끝은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에 두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요원제도 현실화의 궁극점은 교육의 질적 제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혹자는 전문요원제도의 현실화를 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 길을 열어주는 일 정도로 말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많은 이야기를 이 글을 통해서 했지만, 이 글의 행간에서 읽을 수 있듯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이 있다.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문요원제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 전문적인 사람 만들기가 핵심이라는 관점에 서있으며, 나아가서는 이것이야말로 엘리트 모델의 ‘虛’를 ‘實’로 이끌어갈 기본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